

<리스본과 빌바오에서 경험한 도시재생>

거리산보자팀 - 윤O현, 홍O욱

우리는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과 신디자인랩건축사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리스본과 빌바오를 중심으로 8박 9일간의 여정을 떠났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마친 후 리스본행 비행기에 탑승하자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들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창밖을 보며 우리가 유럽행 티켓을 끊었던 이유를 상기해보았다. 일련의 기억들을 천천히 되짚어 보니 그 시작에는 고향에 대한 서로의 공통된 기억이 있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향이 점차 쇠퇴하는 것을 경험했다. 성인이 되어 방문한 고향의 거리는 황량해졌으며 빈 건물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젊은 사람들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비슷한 동기로 출발한 우리는 같은 대학의 문화도시학과에서 만나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과 사업모델들을 배워나갔다.

그렇게 빌바오, 글래스고, 볼로냐와 같은 다양한 해외 사례를 공부하다가 문헌과 수업으로만 그 도시를 이해해야하는 상황이 문득 아쉬워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 지역 문화기획자로서 직접 사례 속 도시를 탐방하며 문화예술적 방식으로 도시재생을 이뤄내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직접 살펴보기로 결심했다. 그에 맞춰 우리는 좀 더 의미 있는 도시 탐방을 위해 여행 이정표와 같은 관점 세 가지를 구상하였다.

우리는 먼저 '거리의 편의성'에 초점을 두었다. 도시 속 시민들이 거리를 편하고 즐겁게 활보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 사회의 고질병 중 하나인 사회적 고립과 소통의 부재는 사람들이 야외를 거닐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도시의 입장에서 그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소외되었던 공간들이 다시 생기를 얻고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거리에서 도시 구조, 편의시설, 휴식공간, 교통수단 등을 중점으로 포착하고자 했다.

그다음 '제3의 공간'을 두 번째 관점으로 설정했다. 집과 직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을 지칭하는 이 개념은 반복되는 일상으로부터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소통의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그중에서도 특히 카페, 서점 등의 문화예술공간은 지역 내 다양한 소규모 커뮤니티를 생산시키는 사회적 교류의 허브이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제3의 공간 내 문화예술공간의 특색 및 한국과 차별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한 관점은 '문화예술 환경'이다. 거리에 자유롭고 시민친화적인 문화예술 여건이 갖춰진다면 시민들은 도시 속에서 쉽게 창의성과 영감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곧 도시 분위기를 매력적으로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에 맞춰 우리는 도시 내 공공미술 현황과 미적가치, 그래비티 및 버스킹 등 스트리트 아트의 활성화를 알아보기로 했다.

어느덧 비행기가 리스본에 도착하자, 우리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곧장 시내로 향했다. 얼마 후 노란 빛깔의 코메르시우 광장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고 그 앞으로는 마치 바다처럼 넓은 테주강이 있었다. 웅장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는 이번 여정의 시작을 알리기에 손색이 없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시내에 도착한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 그만 캐리어 바퀴가 부서지고 말았다. 그 순간 우리는 새삼스레 리스본에 오고자 했던 이유를 떠올릴 수 있었다. 빌바오가 평지 비중이 높고 격자형 구조를 지닌 것과 달리 리스본은 언덕길이 많아 가파르고 자유분방한 곡선의 형태를 띤 도시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준비한 관점을 바탕으로 서로 상이한 특징을 지닌 두 도시를 탐방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리스본은 지형적으로 일곱 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길들이 상당히 가파른 편이다. 게다가 리스본은 과거 재정적으로 호황기였을 때 도시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대부분의 길에 수많은 대리석 조각을 자른 뒤 이어 붙이는 기법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이러한 방식은 미적으로는 아름답지만 요철의 정도가 심해 실용적 가치는 낮아 걷는데 불편함을 초래한다. 그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캐리어 사건 이후에도 거의 20분마다 꼭 휴식을 취해야 했다. 그럼

에도 걷는 게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즐거워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거리 속 불편함을 매워주는 리스본만의 매력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리스본에는 규모와 기능이 다채로운 광장들이 많았다. 코메르시우 광장은 삼면이 테라스로 둘러싸인 채 곳곳에 버스킹 공연이 이루어져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기에 특화되어 있었다. 또한 호시우 광장은 크리스마스 마켓이 진행되고 있어서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지닌 리스본의 광장들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 적합했다. 또한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테라스가 있었는데 광장과 공원뿐 아니라 심지어 주택가 앞에도 놓여 있었다. 테라스를 배치한 카페들은 대체로 저렴한 음료를 판매하고 있어서 부담 없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불편한 리스본의 교통 문제를 보완한 트램의 존재 역시 매우 강렬했다. 리스본의 트램은 다양한 노선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전용 트램길이 있어 가파른 길이라도 문제없이 이동이 가능했다. 속도는 다소 느릴지라도 골목길이 많은 도시에 맞춰 움직이는 트램에 맞춰 창밖을 구경하는 즐거움도 컸다. 현실적으로 도시의 교통 인프라를 급진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울 때 느림의 미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의 기지를 엿볼 수 있었다.

도시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미술작품과 스트리트 아트도 리스본의 매력을 채워주는 중요한 요소였다. 거리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은 주변 공간과의 통일성을 갖추며 미적으로 뛰어난 것이 특징이었다. 가령 플라마켓으로 유명한 'LX 팩토리' 거리에는 카트와 잡동사니로 용의 형상을 만든 작품이 있었는데 공간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어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다. 또한, 소규모의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도 인상적이었다. 노래, 마임, 댄스 등 다양한 버스킹 공연이 계속 이어졌으며 관람료를 강요하는 대신 함께 즐기는 문화가 당연시되었다. 거리에 자유롭게 펼쳐진 그래비티 아트도 자유로운 도시의 이미지를 채워가는데 일조했으며 그 수준도 굉장히 높았다.

리스본 일정을 마친 후, 우리는 저녁 비행기를 타고 빌바오로 향했다. 시내에 도착한 뒤 마주한 빌바오는 리스본 비해 좀 더 웅장하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지닌 곳이었다. 이어서 우리는 '빌바오 효과'의 탄생지인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앞에 다다랐다. 이 건축물은 빌바오 도시재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페인 바스크 주의 주요 도시인 빌바오는 과거 조선업과 제철업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해냈었다. 그러나 이후 주요 산업의 불황과 도시 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점차 쇠퇴하게 된다. 실업률이 심각해지자 시민들은 도시를 떠났고 도시를 관통하는 강 일대는 오염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위기에 맞서 빌바오는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먼저 네르비온 강 일대를 중심으로 녹지사업을 전개했으며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고 보행자 기반의 시설들을 전폭적으로 보급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빌바오는 체계적으로 설계된 도시라는 인상이 강했다. 특히 도시 디자인이 매우 직관적이었다. 도시 내 교통수단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가 이미지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또한 빌바오 시내의 보행로는 매우 넓고 쾌적했다. 리스본의 보행로는 대체로 두 명 이상 나란히 걸기가 어려울 정도였지만, 빌바오는 많으면 네 명에서 다섯 명도 거뜬할 정도였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타인과 부딪히는 일 없이 편하게 도시를 즐길 수 있었다.

도시 구성원들을 배려한 빌바오만의 시설 역시 눈여겨볼 가치가 있었다. 시내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는 커다란 지붕이 설치된 대형 놀이터가 있었는데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아동들이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 옆으로는 마치 재활시설을 방불케 하는 기초 운동기구들이 도시의 노년층을 위해 가지런하게 마련되어 있었다. 이처럼 빌바오는 도시 구성원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들을 도시 곳곳에 펼쳐나가고 있었다.

문화플랫폼으로서의 제3의 공간 측면에서도 눈길이 가는 공간들이 많았다. 그중에서 '아스쿠나 센트로아'는 구건축물을 허무는 대신 외벽을 남기고 안에는 별도의 내부 건축물을 지어서 한 공간에 두 개의 건축물을 공존시켰다. 내부 건물을 지지하는 여러 개의 기둥은 디자이너 필립 스타크의 주도하에 각기 다른 형태

의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보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공간 내 위치한 서점 및 전시장도 국내와 비교했을때 좀 더 이색적인 분위기나 나타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내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수영장이었다. 공간 중앙에 서서 위를 바라보면 유리창으로 만들어진 천장 너머로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 수영장은 빌바오 시민만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누구나 수영장을 볼 수 있게 설계한 의도가 궁금해졌다. 우리의 추측으로는 이곳을 찾은 외부인으로 하여금 일상에서 휴식을 만끽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체험에 제한을 두어서 이 도시에 거주하고 싶은 욕구를 키우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하는 결론을 냈다.

빌바오 구도심에 위치한 리베라 시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시장의 이미지와 매우 다른 양상을 띄고 있었다. 시장 내 매대 앞 바닥에는 소비자의 동선이 선으로 표시되어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이 가능했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보니 시장 안에서 쿠킹클래스를 배울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핀초를 맛볼 수 있는 푸드코트가 마련되어 있었다. 물건을 사고파는 기능 외에 시장을 찾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들이 매력적으로 나타나있었다. 이처럼, 빌바오의 공간들은 과거의 머무르지 않고 현대적인 전략과 기능을 조합하여 새로운 공간 이용을 가능케 했다.

우리는 여정의 마지막 날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을 다시 한번 방문했다. 미술관의 설계는 건축가인 프랑크 게리가 진행했었다. 특히 미술관 외벽은 티타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철강산업의 중심지였던 빌바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자 보는 장소에 따라 매번 새로운 인상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어서 우리는 주변에 설치된 대형미술 작품부터 내부 전시장까지 미술관 전체를 여유롭게 구경했다. 미술관을 나서면서 이곳은 엄청난 관광효과를 만들어낸 것뿐만 아니라 자칫 단조로울 수도 있는 도시의 분위기를 좀 더 활발하고 자유롭게 나타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이유로 좋은 건축물은 그 공간을 넘어 도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을 끝으로 새벽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두 도시에 대해 서로 보고 느낀 것을 공유했다. 대체로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리스본은 지형적인 한계가 분명했지만 그것을 잠식시킬 만큼 독보적인 문화예술적 매력들이 존재했다. 거리 자체가 돌아다니기 불편하다면 그만큼 충분한 휴식공간과 도시 자체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리스본의 현지인들은 삶의 여유가 넘쳐 보였고 교통이 혼잡해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수다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빌바오는 체계적으로 설계한 인프라의 강점을 살려 문화적 터전을 만들어낸 도시라고 느꼈다. 특히 직관적인 도시 디자인이 도시 전반에 퍼져있어 약자와 외부인도 포용할 수 있는 시민친화적 도시라고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빌바오는 도시재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 곳이라고 느꼈다. 지역소멸위기에 당면한 도시들은 대부분 관광산업을 우선순위로 발전시키다가 원주민과 관광객의 충돌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빌바오는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을 계획할 때 무엇보다 도시의 자생력을 키우면서 시민들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빌바오는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었다고 느꼈다.

이번 여정에서 리스본과 빌바오는 모두 기존의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 문화와 특성을 살려 매력적인 도시재생의 시도를 보여주었다. 두 곳 모두 다른 도시의 선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는 온전히 주체적인 도시의 방향성을 정해둔 것 같았다. 이는 현재 특정 도시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무분별하게 벤치마킹하는 국내 현상에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한 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이번 여정이 정말 값진 경험이었음에 감사함을 느끼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춘천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이후 우리 팀은 이번 여정을 떠나기 전에 춘천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는 여행 직전 각자 동네 주민들이 서로 가이드가 되어 동네를 소개하면서 일상 속 즐거움을 찾는 프로젝트와 문화예술공간 내에서 빈티

지 의류를 소개하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했었다. 그 후 우리는 리스본과 빌바오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 및 실행 단계를 다시 점검한 뒤 좀 더 보완된 지역문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여정이 4년간의 대학생활을 마무리 짓는 종착지가 아닌 사회인으로서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 문화기획자가 되고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며 이번 여정의 즐거움 마침표를 찍고자 한다.